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

The moment, we awe

1. 전시 개요

제　목 :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The moment, we awe)
일　시 : 2013년 6월 19일(수) - 7월 28일(일) 40일간
장　소 : 학고재 갤러리 전관
작　가 : 한국작가 3인, 중국작가 3인
　　니요우위 (Ni Youyu 倪有鱼) , 중국, b.1984
　　이석 (Seok Lee 李碩), 한국, b.1976
　　이용백 (Lee Yongbaek 李庸白), 한국, b.1966
　　진양핑 (Jin Yangping 金阳平), 중국, b.1971
　　치우안시옹 (Qiu Anxiong 邱黯雄), 중국, b.1972
　　허수영 (Heo Suyoung 許修榮), 한국, b.1984
기　획 : 윤재갑 (상하이 하오 아트 뮤지엄 디렉터)
출품작 : 회화 20여 점, 비디오 및 설치 10여 점, 조각 1점

2. 전시 내용

학고재갤러리는 2013년 6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아시아 현대미술의 중심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과 차세대주자로 꼽히는 작가들을 함께 소개하는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The moment, we awe)"을 선보인다.

본 전시는 중국과 한국의 현대미술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획자로 평가받는 큐레이터이자 상하이 하오 아트 미술관(HOW Art Museum)의 관장을 맡고 있는 윤재갑이 기획하였다. 한국작가 이석, 이용백, 허수영 3인과 중국작가 니요우위(倪有鱼), 진양핑(金阳平), 치우안시옹(邱黯雄) 3인이 참여하는 본 전시에는 회화, 비디오, 설치 등 30여점의 작품이 학고재 전관에서 전시된다.

3. 기획의 글

제 나이 서른 즈음에 네팔 친구를 따라 안나푸르나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자기 마을에서 유일하게 수세식 변기를 갖췄다는 그 친구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말이 초대지 이건 고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발 삼사천 미터에 있는 그 고산 마을까지 기다시피 갔습니다. 고생 끝에 도착하고 보니 몸이 불덩이입니다. 아마 고산병이었을 겁니다. 그 친구는 마을 사당 안에 저를 눕히고, 고약 같은 것을 뜨거운 양젖에 타서 먹였습니다. 기절한 듯 잘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잠결에 들리는 노래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쏟아지는 햇살 아래 멀리 히말라야가 보이고 문지방에는 붉은 꽃이 가득했습니다. 마당에는 열 살이 채 안되어 보이는 마을 꼬마 이삼십 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와 목소리, 히말라야의 하얀 만년설과 문지방에 수북이 쌓인 붉은 꽃잎에 저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집의 문들이 하나 둘 씩 열리고 온 마을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마을의 풍속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른 새벽에 동네 꼬마들이 옆구리에 광주리를 끼고, 행렬을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산속으로 들어가 붉은 꽃을 따옵니다. 아이들은 마을의 모든 집들을 줄줄이 돌며 노래를 부르면서 문지방에 꽃잎을 뿌립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마을 모든 구성원들의 안녕을 기원한답니다.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이 경이로운 광경을 저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제 어설픈 글 솜씨로는 도저히 온전하게 옮기기 힘듭니다. 그 후로 저는 미술평론가나 전시기획자로 줄곧 살아왔습니다만, 고백하자면 제가 글을 쓰거나 전시를 기획하거나 작품을 고를 때마다 안나푸르나에서 본 그 경이가 가장 큰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들은 제게 그때의 경이와 경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번 전시에 함께한 여섯 명의 작가들도 제게 그런 경탄을 준 작가들이고 작품들입니다. 이십 년이 넘은 오랜 친구부터 육 개월이 채 안 된 갓 사귄 작가들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미술계 역시 진성성과 속물성이 공존하는 세속적인 영역입니다. 이 세속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은, 아주 드물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4. 작가 소개

니요우위 Ni Youyu 倪有鱼

Seven Sages-1(detail), 2013, Metal surface materials, installation painting, 20.5x31cm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천안문사태를 겪으며 탄생한 소위 '차이나 아방가르드'세대가 주도해 오던 중국 현대미술은 70-80년대 이후 출생한 신세대의 미술과는 그 차이가 확연하다. 차이나 아방가르드 세대가 사회, 경제, 정치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며 정치적 팝아트와 냉소적 사실주의를 완성시켰다면, 신세대들의 작품은 이념의 갈등이나 대립과 같은 거대한 흐름을 따르기보다는 다분히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며 작가 자신의 이야기에 치중해 있다. 1984년에 태어난 니요우위 또한 내면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품들을 해 오고 있다. 중국화를 전공한 작가는 송대의 풍경화에 그 뿌리를 두고 현대미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한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갤럭시 프로젝트(소위, 동전 시리즈)는 작가의 어린 시절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어린 니요우위에게 '돈'은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는 신기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 이었다. 2008년 작가가 대학교를 갓 졸업했을 무렵 전세계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다. 갤러리가 문을 닫고, 주변 작가들이 생계를 위해 작업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는 일이 생기면서 작가는 다시금 '돈'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심한다. '돈으로 돈을 벌자!'. 작가는 심혈을 기울여 동전에 "두드리기"와 "그리기"를 행한다. 동전을 구하여 망치로 때리고 사포로 문지르고 칼로 긁어내어 동전 표면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지워낸다. 그리고 그 표면에 중국고전에서 가져온 스토리와 개인의 이야기를 엮어 새로운 이미지를 그린다. 이로 인해 동전은 '작품'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 받는다. 작가는 이를 통해 물리적 실재와 가치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1984년 중국 간저우에서 출생한 니요우위는 2007년 상하이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였다. 2012년 상하이미술관에서 개인전 '간추린 이력'을 진행했고, 같은 해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Ctrl+N-비선형적 실행'에 참가하였다.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니요우위 Ni Youyu

1984 중국 간저우 출생
2007 상하이대학 순수미술 학사
현재 상하이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2 니요우위 –간추린 이력, 상하이 미술관, 상하이

주요 단체전
2012 Ctrl+N: 제 9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제 1회 CAFAM 부수적 현상: 중국 신진 작가의 현재에 관한 보고서, CAFA 미술관, 베이징
사트바, 보고타 현대미술관, 보고타, 콜롬비아; 위프레도 램 센터, 하바나
2011 시그 현대미술 콜렉션: 소리 없는 산수화, 루체른 미술관,
루체른
매직 스페이스, 금일미술관, 베이징
핸즈 온 No.4 - 학습 방법, V 아트센터, 상하이
붓과 잉크시대의 종말: 중국의 풍경화, 본색미술관, 쑤저우, 중국
미지의 미술관: 패턴-소용돌이-만남, 스페이스 스테이션,
베이징; 시대미술관, 광저우, 중국
2010 큰 초안- 시그 컬렉션: 상하이 현대미술, 베른 미술관, 베른
핸즈 온 No. 3 - 강박장애, DDM, 상하이
마음의 거울 – MOCA 인비시지 비엔날레, MOCA, 상하이
존 무어스 상 수상전, 상하이미술관, 상하이
전통 이후, 상하이 두오룬 현대미술관, 상하이
삼생만물, 젠다이 현대미술전시관, 상하이
2009 원료 조합 - 테크노폴리스, 아테네
핸즈 온 No.2 - 평행선, M50, 상하이
2008 원료 조합 - 그리스, 중국 작가간의 대화, MOCA, 상하이; 그리스 현대미술 주립미술관, 테살로니키, 그리스
2006 치명적인 비밀: 시각적 경험의 현대 도시, 젠다이현대미술관, 상하이
핸즈 온 No.1 - 우리의 게임방식을 통하여, 예술산업단지, 상하이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이석 Seok Lee 李碩

이석, Quadrat Ⅱ, 2010-2012, Mixed media, Variable

재독작가 이석은 함부르크대학교에서 순수미술 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지금 현재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항상 국경과 언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활해 온 작가는, 그가 느껴왔던 변화를 다양한 이미지와 형태의 변형을 통해 표현한다. 그는 사진, 추상, 스펙트럼에 독특한 효과를 가한다. 예를 들어 그는 추상표현주의적 회화나 풍경사진 위에 기하학적 스펙트럼을 입히는 작업을 한다. 그 스펙트럼은 기존에 존재했던 빛이나 색을 독특하게 해석해낸 것이다. 작가가 도입한 빛은 인공적인 것이며 이것이 이석의 작업 개념의 단서이다. 작가는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의 명확한 경계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단 하나의 회화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의 작업을 두 가지의 다른 개념의 회화를 아우를 수 있는 중간영역에 위치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그는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사이의 경이로운 연결고리를 유지하려 한다. 매우 이질적인 두 가지 종류의 회화에 눈에 띄는 형태적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특정 지점에서 연결고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작가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작품에는 동양 철학의 배회와 방랑의 개념이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각기 다른 비물질의 표현이 퍼져나가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된다. 이것이 아시아의 정신과 이미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석은 각각의 물질과 이미지간의 변화에서 회화의 형태를 찾아낸다. 사실 이것은 실재와 허구간의 보이는 경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이석 Seok Lee

1976 대구 출생
2002 독일 함부르크 함부르크예술대학 순수미술 학사
2005 독일 함부르크 함부르크예술대학 순수미술 석사
현재 서울, 부산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2 더 저먼 드래프트, 난지창작스튜디오, 서울
2010 WYSIWIG, 골든 푸델 클럽, 함부르크, 독일
2009 파라노름, 화이트 트래쉬 컨템포러리, 함부르크, 독일
2008 개관기념전 – 이석, 스콜라 아트센터, 베이징
2007 사라짐, 갤러리 오브리스트, 에센, 독일

단체전
2013 항상 싸구려 바지를 위해서는 다운타운으로, 쿤스트페어라인빈 – 더 화이트 하우스, 비엔나, 오스트리아
개인적 역설, 화이트 트래쉬 컨템포러리, 함부르크, 독일
2012 거울, 거울, 화이트 트래쉬 컨템포러리, 함부르크, 독일
아우팅, 크라프트라움, 라이프치히, 독일
2011 비쎈 II, 벨트라움, 뮌헨, 독일
북-북-동, 스타트갤러리, 킬, 독일
팝 히트 2, 오토센터, 베를린
실내악, 쿤스트하우스 스펙스트라쎄, 함부르크, 독일
팝 히트 1, 프로젝트 탄츠슐레, 뮌헨, 독일
2010 제 1회 베를린-크로이츠베르크 비엔날레, 포가튼 바 프로젝트, 베를린
로스트 인 썸머, 화이트 트래쉬 컨템포러리, 함부르크, 독일
다 후드 볼륨 1, 갱에피어텔, 함부르크, 독일
비쎈 I, 갤러리 레기에룽스비에르텔, 베를린
더 이벤트 3, 전시공간 하이데스트라세, 베를린
노르트샤우 4, 북독일연방은행 HSH 노르트방크 컬렉션, HSH 노르트방크, 함부르크, 독일
타인을 위한 회의, 세인트 미카엘리스&쿤스트하우스, 함부르크, 독일
2009 뮌츠광장 프로젝트, 함부르크 아키텍처 좀머, 함부르크, 독일
시티 인디아, 예니쉬공원 퀸슈틀러하우스, 함부르크, 독일
무한 책임, 아우토노팝, 함부르크, 독일
2008 벨라다 산타 루치아, 화이트 트래쉬 컨템포러리, 마라카이보, 베네수엘라
열망하는 풍경, 아가텐부르크성, 아가텐부르크, 독일
2007 선천적 감각, 쿤스트페어라인 바트 살즈데트푸르트, 보덴부르크, 독일
이미지 병합 복사본으로 저장, 마르슈탈 문화재단, 아렌스부르크, 독일

수상
2010 몽블랑 세계 젊은 작가 후원상, 함부르크, 독일

소장
몽블랑 커팅 엣지 아트컬렉션, 함부르크, 독일
HSH 노르트방크 아트컬렉션, 함부르크, 독일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이용백 Lee Yongbaek 李庸白

이용백, Broken Mirror, 2011, 42" monitors, mac mini, mirror, stereo speakers, 183.5x250x8.5cm

이용백은 1990년 홍익대 서양화과와 1993년 독일 슈트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 회화과, 1995년 동 대학 조소과 연구심화 과정을 졸업하였다. 한국 현대미술에서 미디어아트 분야의 대표작가로 알려진 이용백은 한국의 특유한 정치 문화적 쟁점과 함께 인간 존재와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한다. 싱글채널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조각, 회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매체들을 넘나들며 어우르는 실험적인 작품들을 통해 이용백은 한국현대미술계에서 독자적인 틀을 구축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1년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개인전에서 소개하였던 작품들 중 세 가지 시리즈 - 조각작품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피에타' 시리즈 중 '피에타: 자기죽음'(2008)과 회화연작 '플라스틱피쉬' 함께 국내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미디어 설치작품 '브로큰미러' 시리즈 - 를 선보인다.

'브로큰미러'는 90년대 중반 작가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 처음 선보인 작품으로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방식은 따르되 20여 년 동안 네다섯 차례에 걸쳐 기술적 진보를 이룬 작품이다. 관객이 거울 앞에 서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갑자기 굉음을 내며 총알이 날아오고 유리가 깨진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산산히 부서진 거울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온전한 거울로 돌아간다. 깨지는 거울과 자신의 모습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하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실재의 시간과 가상의 시간이 오버랩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이용백 Lee Yongbaek

1966 김포 출생
199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1993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독일
1995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 연구심화 과정 조각과 졸업, 독일
현재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1 이용백: 신천사(新天使), 핀갤러리, 베이징
사랑은 갔지만, 상처는 아물겠지요, 제 54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베니스
2008 플라스틱,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2007 뉴 폴더, 아라리오베이징, 베이징
2006 엔젤-솔져, +갤러리, 나고야, 일본
2005 엔젤-솔져, 대안공간루프, 서울
엔젤-솔져, 콴두미술관, 타이페이, 대만
1999 촉각적 다큐멘터리, 성곡미술관, 서울
1993 설치와 삽화, 첸트쇼이어 갤러리, 뮨싱겐, 독일
1990 마테리알과 비마테리알, 소나무갤러리, 서울

주요단체전

2013 비엔날레 큐베 13, OK 현대미술관, 린츠, 오스트리아
아베스타 아트 2013, 아베스타, 스웨덴
이더 오어, 니콜라이 아트센터, 코펜하겐; 하우스 암 발트제, 베를린
무브 온 아시아: 아시아 비디오 아트 2002 - 2012, ZKM, 카를수루에, 독일
2012 글로벌그루브, 일라이 앤 에디스 브로드 미술관, 미시간주립대학교, 이스트랜싱, 미국
로드 투 12,104마일, 빨레 데 글라스, 부에노스 아이레스
디지털미학 2012, 해리스 미술관, 프레스턴, 영국
유희적 저항, 캔버스 인터내셔날 아트, 암스테르담
몸의 사유, 소마미술관, 서울
리부팅: 한-중 수교20주년 기념전, 염황미술관, 베이징
나눔을 위한 도전, 바렌츠 스펙타클, 노르웨이
2011 제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특별전: We Are Who You Are, 갤러리 지지향, 파주
추상하라!: 국립현대미술관소장 현대미술작품의 새로운 해석, 덕수궁미술관, 서울
키메라, 싱가폴 미술관, 싱가폴
2010 춘추(春秋), 학고재, 서울
플라스틱가든: 한국현대미술전2010, 민생현대미술관, 상하이
다른 유사성, 쿤스트페어라인 보훔, 보훔, 독일
2009 분덕스: 국제미술프로젝트 2009, 하노버파우스트 미술관, 하노버, 독일
다른 유사성, 산트랄 이스탄불, 이스탄불, 터키
모스크바 비엔날레, 모스크바
류블랴나 그래픽아트 비엔날레, 슬로베니아
문 제너레이션, 필립스 드 퓨리, 사치갤러리, 런던
통로_09 유니버셜 큐브, 스피너리 라이프치히, 독일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APT 프로젝트, 예술가공동신탁, 베이징
09-07 박하사탕: 한국현대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미술관, 아르헨티나; 산티아고현대미술관, 칠레
2008 겸허한 기념비: 한국 현대미술, 킹스린아트센터, 영국
재사유된 아시아: 제3회 난징트리엔날레, 난징미술관, 난징, 중국
낭비: 제5회 부산비엔날레, 부산
판타지스튜디오 프로젝트, 더 블레이드 팩토리, 리버풀, 영국
확장된 감각: 한국/일본 미디어아트의 현재, 대안공간 루프, 서울
2007 트랜스 팝: 한국 베트남 미술, 아르코 미술관, 서울
소프트파워, 한국 국제 교류 문화센터, 서울
티나B. 프라하현대미술제, 체코소프트파워,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프라하, 체코
2006 울룩세임/투튜게일: 중국 한국 일본의 미술, 폰다찌오네 싼드렛또 레 레바우덴고, 토리노, 이태리
여자를 밝히다, 페이퍼테이너미술관, 서울
부드러움, 소마미술관, 서울
써킷 다이아그램 서울, 성곡미술관, 서울
슬로우 텍, 현대미술관, 타이페이, 대만
파셋-이즘의 예술, 우쓰노미야 미술관, 동경, 일본
차이점위에, 슈투트가르트쿤스트페어라인, 슈투트가르트
청계 영상 극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5 두 개의 아시아, 두개의 유럽, 두오룬 현대미술관, 상하이
포스트 IMF, 아트아크갤러리, 상하이
베를린에서 DMZ까지, 올림픽미술관, 중국
2004 제2 회 미디어디지털 서블라임 타이페이-서울 비엔날레, 타이페이현대미술관, 타이페이, 대만
2003 모바일 프로젝트 01 밀라노 '프론토', 대안공간 케어 오브, 밀라노, 이태리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2002 제2회 국제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씨티 2002,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멈춤: 제5회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4, 광주
한국의 빛과 색, 서울시립미술관개관기념전, 서울시립미술관
2002 미디어아트 대전-뉴욕 스페셜 이펙트, 대전시립미술관
2001 1초 전, 대안공간 루프, 서울
2000 제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베니스, 이탈리아
미디어씨티 서울 2000: 디지털앨리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9 시각문화 세기의 전환, 성곡미술관, 서울
1996 신세대 흐름: 테크놀러지 그리고 안티테크놀러지,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95 조각 오브제, 쿤스트하우스, 울름, 독일
만짐, 에쓰링겐 국립미술관, 에쓰링겐 독일
1990 황금사과, 타라 공동전, 토탈갤러리, 서울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아르켄 현대미술관, 덴마크
함부르크반호프 현대미술관, 베를린, 독일
프리더부르다 미술관, 바덴바덴, 독일
에쓸 현대미술관, 오스트리아
스헤링하 현실주의미술관, 스판브록, 네덜란드
루벨 패밀리 콜렉션, 마이애미, 미국
엘리와 에디트 브로드 미술관, 미시간주립대학교, 이스트랜싱, 미국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진양핑 Jin Yangping 金阳平

진양핑, Urban Maze No.2 (虛城 2), 2011, Oil on canvas, 200x265cm

진양핑은 중국 러칭에서 태어나 상하이를 기반으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다. 1997년 항저우 중국미술학원 서양화과 졸업 후 2005년 동대학원 석사, 2010년 동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년 중국미술학원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2002년 베리에이션 2002(아트 코뮌, 홍콩), 2003년 바디 2003(까세 갤러리, 파리), 2007년 시우 린(갤러리 안드레아스 바인더, 독일 뮌헨), 2012년 도시 미로(상하이 미술관, 상하이)까지 8회의 개인전을 국내외에서 진행하였으며 40여 회의 기획전에 참가하였다. 한국에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진양핑은 2012년 상하이 미술관 개인전에 선보였던 작품 중 회화 4점을 선별하여 전시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진양핑의 작품은 작가가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리얼리즘을 마스터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회화는 움직이는 무술의 한 장면, 아파트와 달리는 자동차, 동물, 새, 나무, 자연 풍경을 소재로 한다. 꼴라쥬를 연상시키는 그의 캔버스에 옮겨진 이미지들은 텔레비전에서 혹은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마구 섞여있다. 한 면이 2미터가 넘는 캔버스에 작가는 영화에서 무작위로 한 장면을 잡아내 이를 캔버스에 담아내며, 이 무작위의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을 무시한 채 뒤죽박죽 얽혀있다.

진양핑의 캔버스 위 물감은 그의 손과 몸의 즉흥적인 움직임을 표출한다. 캔버스 표면에 층층이 쌓인 물감과 붓자국은 그의 강한 물리적인 힘이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진양핑의 작품은 그의 강한 에너지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제스처이다.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진양핑 Jin Yangping

1971 중국 러칭 출생
1997 중국 항저우 중국미술학원 서양화과 학사
2005 중국 항저우 중국미술학원 서양화과 석사
2010 중국 항저우 중국미술학원 서양화과 박사
현재 상하이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2 도시 미로, 상하이미술관, 상하이
2011 도시의 거울, 아더 갤러리, 상하이
2007 시우 린, 갤러리 앤드리아 바인더, 뮌헨, 독일
2006 휩드 이미지, 55 갤러리, 상하이
2003 바디 2003, 까세 갤러리, 파리
2002 베리에이션 2002, 상하이 인비저블 갤러리, 상하이
베리에이션 2002, 홍콩 아트 코뮌, 홍콩
1998 진양핑, 중국미술학원 갤러리, 항저우, 중국

단체전
2012 신장 비엔날레, 신장 아트센터, 우루무치, 중국
2011 아름다운 장소, 아더 갤러리, 상하이
2010 상하이 패셔너블, 삿포로맙, 삿포로, 일본
링크, 밍유안 아트센터, 상하이
더 포인트 오브 제로, 상하이 두오룬 현대미술관, 상하이
리얼리즘 파빌리온, 아더 갤러리, 상하이
2009 새로운 채널: 미디어쇼, 미술문헌예술센터, 우한, 중국
팬 로드, 리파인드 네스트 갤러리, 상하이
모바일 커뮤니티 – 798 베이징 비엔날레, 798 테마파빌리온, 베이징
아더팩터스, 아더 갤러리, 베이징
2008 전자미디어회화전, 상하이 두오룬 현대미술관, 상하이
클로저, 헤이차오 미술관, 베이징
아카데미 온 더 씨, New B 갤러리, 상하이
12 비트, 55 갤러리, 상하이
하늘에서 표류하기, 린다 현대미술센터, 베이징
'08 헤이차오 현대미술전, 헤이차오미술관, 베이징
2007 사생- 제1회 스케치비엔날레, 광저우미술학원미술관, 광저우
중국의 현대미술, 바싸앤세네클렌즈갤러리, 제네바
허위영웅시대, 이스트 링크 갤러리, 상하이
아트.DC- 중국의 새로운 미술, 워싱턴컨벤션센터, 워싱턴 DC
자신과 모두의 행복 – 중국 미술 아카데미 공공미술연구전, 중-일교류센터, 도쿄
218부터 M50까지, 샹하이 갤러리, 상하이
언어의 구원, 쓰팡 현대미술관, 난징, 중국
696 웨이하이 로드 – 상하이 현대예술 & 오픈 아티스트 워크샵, 두오룬 현대미술관, 상하이
2006 항저우 디렉션 - 현대미술, 오리엔테이션 아트센터, 항저우
터칭 – 2006 현대미술전, 베이징 현대미술관, 베이징
탐험과 발견: 중국근대유화, 필리핀 국립미술관, 마닐라
상태와 회귀 – 현대 회화 초대전, 밍유안 아트센터, 상하이
현대미술 18작가전, 55 갤러리, 상하이
2005 살, 화장실, 소멸- CUM 현대미술전, 55갤러리, 상하이
아카데미와 돌연변이 - 젊은 작가 초대전, 월드트레이드몰, 상하이
오픈 스페이스 – 펑산 아트스페이스 개관기념전, 펑산 아트스페이스, 항저우
2004 새로운 비전 - 젊은 중국 작가, 씨틱플라자, 상하이
중첩하기 저장 & 상하이 현대미술전, 저장전시관, 항저우
중-일 근대미술, 시후미술관, 항저우, 중국
2003 혁신, 잉크, 담채- 한•중•일 작가전, 홍콩 아트코뮌, 홍콩
중국 현대 구상미술, 임프레션 갤러리, 항저우, 중국
1999 마카오 반환행사 중국미술전, 마카오 미술관, 마카오
1997 새천년을 향하여 – 중국 젊은작가 유화전, 중국 국립미술관, 베이징
1996 '96 뤄중리 장학금 수상전, 중국 국립미술관, 베이징

소장
마카오시청, 마카오
저장미술관, 항저우, 중국
중국미술학원, 항저우, 중국
하오미술관, 상하이
오사지 미술재단, 홍콩
UC 타워, 상하이
상하이 두오룬 현대미술관, 상하이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치우안시옹 Qiu Anxiong 邱黯雄

치우안시옹, Sound of Chiaroscuro, 2009, Single channel video, 4' 35''

치우안시옹의 비디오와 애니메이션 작업은 평온함과 서정적인 섬세함, 우아함으로 가득하다. 이 평온함과 섬세함은 사회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며 기존에 갖고 있던 시공간의 개념, 실재와 허구의 개념을 가로지른다. 이러한 방법으로 작가는 과거와 현재를 정교하게 연결하는 파노라마를 제시한다. 작가는 고대와 현대의 중국문화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서사를 충실하게 표현해내며 우리 주변의 모순의 세계를 그려낸다.
1972년 쓰촨성 청두에서 태어난 치우안시옹은 이 곳에서 예용칭과 장샤오강의 예술 관례를 연구했다. 대학 시절 치우안시옹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을 열었는데, 얼마 안되어 이 술집은 쓰촨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언더그라운드 음악과 미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당시 허두오링, 저우춘야, 선샤오통과 같은 친구들이 주로 모였다. 독일 카셀로 유학을 간 그는 카셀대학교 예술대학에서 6년간 현대미술과 중국 전통 문화를 공부하였으며 2003년에 졸업했다. 2004년에는 그는 상하이 사범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상하이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과 도쿄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치우안시옹 Qiu AnXiong

1972 중국 청두 출생
1994 중국 쓰촨 미술학원 미술교육 대학, 충칭, 중국
2003 카셀대학교 예술대학, 카셀, 독일
현재 상하이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2 역사적 풍경, 마라비니 갤러리, 볼로냐, 이탈리아
2011 움직이는 서사 – 아시안미술관 크로우컬렉션, 아시안미술관, 달라스, 미국
동물원, OCAT 현대미술관, 선전, 중국
초상화 – 커버 & 클린, 마라비니 갤러리, 볼로냐, 이탈리아
2010 동물원, 보어스-리 갤러리, 베이징
치우안시옹: 산과 바다의 새로운 책, 스펜서미술관, 로렌스, 미국
2009 유토피아, 아르켄 현대미술관, 코펜하겐
노스탤지아, 4A 갤러리, 시드니
어바웃 - 산과 바다의 새로운 책, 보어스-리 갤러리, 베이징
대지의 유혹, 바바라 그로스 갤러리, 뮌헨
2008 노스탤지아, 번드18 크리에이티브 센터, 상하이
2007 기억상실에 빠져들기, 보어스–리 갤러리, 베이징
치우안시옹, 도쿄 현대미술관, 도쿄
중화민국 풍경, 그레이스 리 갤러리, 취리히
2006 치우안시옹의 애니메이션과 페인팅, 한아트 TZ 갤러리, 홍콩
치우안시옹 대표작, 리버풀 빅스크린, 리버풀, 영국
2005 해독된 시간 – 분쇄된 내러티브, 비즈아트센터, 상하이
2002 치우안시옹 회화, 한아트 TZ 갤러리, 홍콩

주요단체전

2012 노스탤지아, 동아시아 현대미술전, MOCA, 상하이
제6회 아시아 퍼시픽 현대미술 트리엔날레, 퀸스랜드 아트 갤러리, 브리즈번, 호주
제1회 시안 애니메이션 필름 페스티벌, 시안, 중국
셰도우 필름 페스티벌, 우르슬린 스튜디오, 파리
중국의 수묵화, 후베이 미술관, 우한, 중국
미지의 미술관: 보다/보았다, UCCA 미술관, 베이징
제1회 선전 애니메이션비엔날레, OCAT 아트센터, 선전, 중국
OMEN2012-새로운 중국미술, 상하이미술관, 상하이
2011 파라다이스 로스트, 이스탄불 현대미술관, 이스탄불
무빙 이미지 인 차이나 1988-2011, 민생미술관, 상하이
2011 청두 비엔날레, 청두 산업문명 박물관, 청두, 중국
미지의 미술관: 패턴 - 소용돌이-만남, 스페이스 스테이션, 베이징; 시대미술관, 광저우, 중국
오스큐리타: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베니스비엔날레, 베니스
캄포 SS.지오반니 앤드 파올로, 카스텔로, 베니스
미지의 미술관: 코랄, MOCA, 상하이
미지의 미술관: 데코, 애로우 팩토리 스페이스, 베이징
2010 제 29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상파울루
부산 비엔날레 - 리빙 인 에볼루션, 부산
난징 비엔날레, 난징, 중국
작가들의 비디오, 밴쿠버 아트갤러리, 밴쿠버
차이니즈 필름 데이즈, 3.14 재단, 베르겐, 노르웨이
복제의 문화(들), 괴테 인스티튜트 홍콩, 홍콩
팩스, 파라/사이트 아트 스페이스, 홍콩
2009 실재와 허구 사이: 애니매 믹스 비엔날레베이징, 금일미술관, 베이징
씨티_넷 아시아 2009,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상하이프!, 하이드 파크 아트센터, 시카고
제 6회 아시아 퍼시픽 현대미술 트리엔날레, 퀸스랜드 아트 갤러리; 갤러리 오브 모던 아트, 브리즈번, 호주
프랙시스: 불확실한 시대의 미술 – 제 2회 테살로니키 현대미술 비엔날레, 주립 현대미술관, 테살로니키, 그리스
민중과 아시아 현대미술의 묘한 세상, 히로시마 시립 현대미술관, 히로시마, 일본
2008 아더 – 제 11회 카이로 비엔날레, 카이로
과도기의 특징 – 중국 현대 수묵화, 드레스덴 아트 컬렉션, 베를린국립미술관, 베를린
무빙 호리즌, UBS 아트 컬렉션, 중국국립미술관, 베이징
전환과 확장 – 제 5회 서울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명상 비엔날레, 자멕 컬쳐센터, 포즈난, 폴란드
제 3회 광저우 트리엔날레, 광동 미술관, 광저우, 중국
제 16회 시드니 비엔날레, 시드니
아트39바젤2008 아트언리미티드: 기억상실에 빠져들기, 바젤 스틸&모션, 오사카 국립현대미술관, 오사카, 일본
차이나파워 스테이션 파트3, 국립역사미술박물관, 룩셈부르크
2007 제 3회 롄저우 국제 포토 페스티벌 2007, 롄저우, 중국
비디오 라운지, 취리히미술관, 취리히
차이나 파워 스테이션 파트2, 아스트룹피언리 현대미술관, 오슬로
애니메이션 페인팅, 샌 디에고 미술관, 샌 디에고
애니메이티드 히스토리, 노가 갤러리, 텔 아비브, 이스라엘
중국수묵화, 관산월 미술관, 선전, 중국
현대시각예술 아트프로젝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현대미술센터, 애들레이드, 호주
아트 랜@아시아, 자임 아트센터, 요코하마, 일본
2006 제6회 상하이비엔날레: 하이퍼 디자인, 상하이미술관, 상하이
엔트리 게이트: 이질성에 대한 중국의 미학, 상하이 현대미술관, 상하이
더 트웰브, 젠다이 현대미술관, 상하이
중국 독립 영화제, 파리
불안, 상하이현대미술관, 상하이
차이나 파워스테이션, 배터시 파워스테이션, 설펜타인갤러리, 런던
리바이벌: 뉴 잉크 아트 상하이 2006, 주치잔 미술관, 상하이
옐로우 박스, 컨템포러리 아트 인 차이니스 스페이스, 상하이

수상

2006 선외가작, 중국 현대미술상, CCAA, 베이징

소장

뉴욕현대미술관, 뉴욕
스펜서 미술관, 로렌스, 미국
옥스포드대학교 미술관, 옥스포드
취리히미술관, 취리히
도쿄현대미술관, 도쿄
홍콩미술관, 홍콩
아스트룹 피언리 현대미술관, 오슬로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허수영 Heo Suyoung 許修榮

허수영, Aquarium and Pond Fish, 2011, Oil on canvas, 210x338cm

허수영은 소재로 삼은 모든 것들을 하나의 캔버스에 담아내려는 강박증에 가까운 시도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수집해오던 식물도감, 곤충도감 등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된 사진집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는 작가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의 모든 이미지를 한 캔버스에 쏟아 붓는다. 상상력으로 조합된 허구의 풍경 속에 빼곡히 자리잡은 과잉 집중된 이미지들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넘어 공포와 경외를 동시에 자아낸다.

최근 허수영은 2012년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기간 동안 작업한 '양산동' 시리즈를 내놓았다. 단순히 양산동의 풍경화처럼 보이는 이 시리즈들은 사실 작가가 1년여에 걸쳐 제작한 것으로 양산동의 봄여름가을겨울을 모두 담고 있다. '양산동 04'는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풍경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처음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즈음이었을 것이다. 신록이 무성한 여름을 지나 나무 잎사귀가 노란빛으로 물들고, 초겨울 눈발을 맞으며 하나 둘 눈 속에 묻히는 모습을 작가는 묵묵히 덧그리기를 반복했다. 그림을 그리는 대상은 도감의 사진에서 주변의 풍경으로 변화하였으나, 한 캔버스에 모든 내용을 쏟아 붓는 방식은 전 시리즈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고집스러운 수행자와 같은 허수영의 과정으로서의 그리기는 동시대 회화의 진정성과 작업의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허수영은 인천에서 태어나 2008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2010년 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2012년 제14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3년 5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시공모에 선정되어 양산동 시리즈를 주제로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인전을 진행하였다.

學古齋
Hakgojae
Gallery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허수영 Heo Suyoung

1984 인천 출생
200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졸업
20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대학원 졸업
현재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3 리센트 페인팅스, 인사미술공간, 서울
3852 페이지, 5725 이미지,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1 Ctrl + V,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0 근소한 차이, 자하미술관, 서울

주요 단체전
2013 파주헤이리 봄 예술축제 – 헤이리 슬로우 아트, 갤러리 더 차이, 파주
2012 선셋장항페스티벌 공장미술제, 서천
2011 바깥풍경 - 그림없는 그림책, 키미아트, 서울
회화의 수집, 닥터박 갤러리, 경기도
안전지대 넘어, UNC 갤러리, 서울
2010 코리아 투모로우, SETEC, 서울
과정을 묻다, 모란미술관, 경기도

레지던시
2013 금호미술창작스튜디오 8기, 이천
2012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6기, 광주
2010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제 4기, 청주

수상
2013 인사미술공간 전시공모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12 제14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광주신세계, 광주
2011 작가발굴 공모KIMI for You, 키미아트, 서울

소장
미술은행, 과천
자하미술관,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
을지병원, 서울
신세계 컬렉션, 서울